

시편 85편

오! 주님 우리를 살리소서



40일

말레이시아를 위한 금식과 기도



8월 7일 - 9월 15일

NECF
MALAYSIA



어른용

오! 주님
우리를 살리소서



시편 85편	3
여는 글	4
진정한 금식이란 무엇인가?	6
1일 - 5일차 : 기도에 대한 이해를 돌아보기	8
6일 - 10일차 : 하나님의 진노	13
11일 - 15일차 : 하나님의 자비	18
16일 - 20일차 : 일어나 건축하자	23
21일 - 25일차 : 기도의 제단	28
26일 - 30일차 : 하나님의 음성	33
31일 - 35일차 : 부흥	38
36일 - 40일차 : 부흥의 때	43
감사의 글	48

시편 85편

- ¹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²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³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 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⁵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⁶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⁷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 ⁸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⁹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 ¹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¹¹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¹²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¹³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개역개정)

오! 주님 우리를 살리소서

바벨론 유수를 다룬 시편 85편과 현재 말레이시아 교회의 상황은 이것이 국가적 재앙이라는 면에서 분명한 유사성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이해하지 못해 부적절한 기도를 드린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답답해하지만, 이 나라의 상황이 곧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가능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제단 위에 공허한 말만 쏟아내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허울뿐이고 무심하기만 한 장황한 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될 수 없다.

시편기자의 부르짖음은 그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불평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호느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적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초점은 약속의 ‘땅’(1, 9, 12절)과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돌이키심’(1,4절)에 있었다.

부흥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변해야 한다.

우리는 ‘돌이킴’에 관심이 없고, 단지 우리가 옳다고 믿고 행하는 것으로 변화를 보고 싶어 한다. 우리의 가정, 지역교회,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까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주께서 다시 살리지 않겠는가”(6절)

그렇다.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10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11절)라고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¹Expositor's Bible Commentary

하나님의 ‘자비’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다. 우리가 크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응답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탄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을 찾고 계신다.

말레이시아 교회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적절한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1)우리가 이 나라의 부패의 한 부분인가? 단지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부패한 것인가? 교회는 깨끗하지 못한 돈의 십일조를 모으는 것을 기뻐하면서 성도들을 권고하는 데는 소극적인가?

(2)우리는 정의로움 없이 부흥과 회복을 구하고 있는가? 외설이 난무하고 동성애가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에 대해 교회의 성난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회복만 바라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3)“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우니(9절)”.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하고, 경외심 없는 예배를 드리고, 제자가 없는 리더십을 목격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우리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란다. 하지만 더 분명한 초점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7절)”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금식을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도구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우리의 기도예 응답하게 만드는 방법쯤으로 여긴다. 그러다가 우리의 부르짖음과 탄식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한 환상을 버리게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거나, 금식과 기도의 효과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 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이사야 58:3)

이사야서 58장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의 종류에 대해서 말한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달력의 일곱 번째 달 10일에 모든 백성이 금식에 참여하여 매년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려 했다. 이 날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을 제쳐놓고 모든 것에서 절제해야 하는 의무가 지워졌다. 이 날은 그들이 스스로의 죄로부터 깨끗게 되어지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행했던 습관적인 금식에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그들을 책망하셨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사야 58:3-5)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 구별된 바로 그 날, 그들이 행했던 금식의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스러운 죄였다. 이것은 교회가 역사 가운데 반복해 온 죄이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에게 분노를 품는다. 종종 우리의 금식과 기도의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이다. 기도와 금식은 우리 자신의 악함을 깨달아 회개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금식할 때 그 목적은 자신의 정결함이 되어야 한다. 이 정결함은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의 선함과 호의를 베푸는 모습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된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야 58:6-7)라고 가르친다. 간단히 말하면, 금식은 한끼 식사를 거르는 것이거나 정해 놓은 몇 가지를 단 며칠 동안만 참아내는 것이 아니다.

금식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하여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 이 땅에서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부금 모금:

금식과 기도 기간에 한끼 이상의 금식을 작성하십시오. 금식을 통해 얻어진 재정을 개인으로나 교회가 단체적으로 저희에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Public Bank 계좌 번호 3078972807 (NECF)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 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동부지역의 교회와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2. 시골지역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3. 리더십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4. 제자 삼는 사람을 세우는 훈련을 위해.

송금한 은행 입금내역서를 팩스(03-7729-1139)나 이메일(prayer@necf.org.my)로 보내주십시오. 보내 실 때, 입금액 옆에 “40-day Fasting and Prayer Charity Purpose”라고 반드시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를 위한 40일 금식과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보자. 이렇게 시작해 보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다. 그분의 신실함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를 의지할 수 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16~18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이해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예레미야 9:23~24을 읽으라). 우리가 그분에게 이러한 태도로 다가간다면, 기도는 더 이상 따분한 일이나 의무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매일 기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놀라운 계시와 기적과 돌파를 경험하는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곳에 뿌리 내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기도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가?**

PRAY

나라를 변화시키는 7가지 영역 - 사업

- 정직한 사업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이를 위해 교회가 사업가들을 선하게 양육하고 지원하도록.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중보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 말레이시아의 재정적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라를 파멸시키는 부패한 관행들이 제거하시고 선한 방법들이 힘을 얻도록. 투자유입과 경제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전한” 그림을 얻으려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최대한 빨리 응답하시라고 재촉한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양방향 대화이지, 독백이 아니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을 열망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한번에 성경을 많이 읽기는 힘들겠지만, 영의 양식을 먹는 훈련을 위해 40일 동안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 것을 작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약과 시편 전부를 다 읽을 수 있다 (매일 신약 7장과 시편 3~5장을 읽으면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맞볼 수 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 **내 영은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가?**

PRAY

나라를 변화시키는 7가지 영역 - 미디어

-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확신 가운데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시고 언론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도록 기도하자.
- 뉴스실 편집자들과 프로듀서들에게 거짓으로부터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언론 감시자이며 여론 형성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 독립 언론 기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진실을 보도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자금과 재능을 주시도록
- 그리스도인 언론인들을 위해 기도하자. 특별히 복음의 관점을 잃은 이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예배를 드리며 다윗왕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시 145:2~3)”라고 선포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말씀읽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될수록,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배를 드리고, 모든 왕 위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충만히 잠겨있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 놓게 된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야 2:16).”

PRAY

나라를 변화시키는 7가지 영역 - 문화, 예술

- 이 시대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위해 기도하자. 문화산업에서 자리 잡은 기독교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대안적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자신들의 환경에 영향을 드러내도록 (다니엘서 3장을 읽으라)
- 굳어진 마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자. 진리를 보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중단한 문화산업분야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워 지고 하나님께 뉘우쳐 다시 돌아오도록
- 그리스도인들이 큰 비전을 담대하게 품도록 기도하자. 비록 자신들이 품은 꿈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그 꿈이 이해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할 용기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사용될 창의력을 넘치게 부어주시도록
- 지혜와 안목을 위해 기도하자. 예술과 오락 소비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진리로부터 거짓말을 걸러낼 분별력을 주시도록

그식은 우리의 기도를 보완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마치 운동선수나 군인이 하듯 자신의 몸을 훈련시켜 복종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단히 말해, 금식은 집중과 헌신을 요구하는 훈련으로, 식사나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어떤 것들을 삼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의 감각이 명료해 지도록 돕는다.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계획 모두를 얼마나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갈망하시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러한 기도의 계절에 무엇을 금식할 필요가 있는가?

PRAY

나라를 변화시키는 7가지 영역 - 교육

- 정책 담당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현재 시스템에서는 시골지역 학생들은 교육 기회와 환경 노출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학생들에게 뒤쳐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헌신됨을 주시도록.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사고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과 열정과 재능 있는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 말레이시아 전역에 있는 기독교학생회(CF)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독교학생회들에 복 주시고 보호하시도록. 제자를 양육할 교사와 학생 리더들을 보내주셔서 청소년,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반석 위에 서도록

도로 성도 중에서 한마음인 사람들과 기도하는 것이 좋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사랑과 선한 행동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권면한다. 40일 기도와 금식은 분명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함께 기도하는 파트너나 그룹이 있다면 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이 40일은 우리의 간증과 깨달음을 통해 서로를 발견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세우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31)

이 기도의 계절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기나 기록으로 적어 보라. 당신의 교회와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말레이시아를 향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라. 이 나라를 위한 변화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믿음을 붙잡도록 계속 권면하라. 이것은 말레이시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다!

나라를 변화시키는 7가지 영역 - 가정

- **결혼을 위한 기도** : 성경적 가치를 따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회복 되도록. 간통, 이혼, 폭력적 관계로부터 결혼이 보호받도록 기도하자
- **부모를 위한 기도** : 성경적 부모됨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양육한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가정 예배를 세워 이를 행하도록
- **미혼자와 독신자들을 위한 기도** :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성경적인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독신자들이 순결함을 지키고 목적을 따라 독신 생활을 살아가도록.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시 85:4-5)

대부분의 종교에는 인과응보의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는 않을까’, ‘혹시 그 동안 저지른 나쁜 짓들로 인해 해를 입지는 않을까’하는 등의 불안함 말이다.

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고후 5:14).”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시 여긴다. 주위를 둘러보라. 하나님을 잊은, 창조주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타락한 세상.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에 머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완고하여 회개를 미루고 있다면, 우리는 제 발로 하나님의 보호를 넘어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곳은 피할 수 없는 죄의 처참한 결과를 직면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는 곳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한량없는 자비를 받게 되고 우리의 죄는 사함받는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이다.

PRAY

나라를 변화시키는 7가지 영역 - 종교

- 말레이시아의 모든 이들을 종교 극단주의 및 과격주의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어느 종교이든지 극단적인 교리에 세뇌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잘못된 믿음의 행위들에 대항하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 단지 말로만 종교간 중용과 화합을 추구하지 않고 그 가치가 사회 통치 안에서 실현되고 사회 깊숙이 녹아 들도록. 모든 국민들이 서로의 종교에 대한 관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의 유익을 위한 여러 종족 간의 조화를 추구하도록.

T 것이 하나님이 한 민족을 버리게 하실 만큼 진노하게 하는가? 구약성경 및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격노하시게 해서 결국 외면당하게 되는 세 가지 행동 유형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반역, 완고함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고, 그로써 이 땅에서 복 받고 무엇을 하든 번성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계명 중에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사랑과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스레 다른 것을 향하게 된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된다.

시편기자는 자비가 풍부하시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8).”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지만 몇 세대를 넘어서기까지 오랫동안 묵인하고 방치해둔 죄악은 무엇인가? 우리에게겐 아직 회개할 시간이 있다. 죄의 굴레를 끊어내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자.

나라를 변화시키는 7가지 영역 - 정부

- 현정부에 대한 비난의 말보다 생명의 말을 외치도록
-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정당과 분파를 따지지 않고 공익을 위한 결정을 하고 부당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을 내리도록
- 정부를 둘러싼 탐욕의 영이 끊어지도록
-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나라의 일꾼들이 새롭게 되어 무정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 공직에서 나라를 섬기도록 세워진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총과 힘을 주시도록

에스겔 34:2-4을 읽으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무책임한 목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 목자로 세운 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무척이나 슬퍼하신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심판을 자처하는 목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들이다. 교회의 재정을 임의대로 악용하는 이들, 간음에 빠지고 배우자와 자녀를 학대하는 이들, 공동체 지체들의 삶의 상처를 외면하여 공동체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 이들,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더 이상 훈계하지 않는 이들, 맡겨진 무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 회중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가르치는 이들. 이러한 이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보다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이다.

무책임한 양들

양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책임들이 있으며, 양의 무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교회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믿음 없는 행동으로 새신자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일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은 현재의 교회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들을 대신하여 당신이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페낭(Penang)

- 페낭의 교회들을 위해 : 열방을 향한 중보의 처소가 되기 위한 새 불씨가 일어나도록
- 무분별한 간척 사업의 중단을 위해 : 국내,외의 투자자들에 의한 개발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이들이 조상대대로 살았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관료들이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혜와 사랑과 공정함으로 문제를 다루도록
- 매춘의 근절을 위해 :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공직자들이 매춘 단속을 강화하도록, 성매매의 덫에 걸린 자들이 자유를 얻도록

누가복음 19 : 41 - 44을 읽으라

0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애통해하지 않는 것들을 살피시며 슬퍼하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에 무심했고, 그들이 어떤 시대에 서 있는지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우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앞으로 닥칠 일들을 아셨다. AD 70년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대인 대학살,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의 설립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러 나라들의 적대와 반감까지 말이다. 예수님은 열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사람들은 그를 만질 수도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도 그의 사역도 인지하지 못했다.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을 바쁘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오심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시대를 지난 후에 그제서야 후회하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뤄져 가고 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곧 심판의 날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기가 있다. 당신이 이를 놓친다면 고난의 시간이 곧 다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말레이시아에 역사하시는 때를 놓쳐서는 절대 안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 당신이 삶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PRAY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조호(Johor)

- 왕(sultan)과 가족들을 위해 : 조호주의 왕은 조호주를 상업적 기회의 중심지로 개발할 비전을 가지고 있다. 조호 주의 경제 성장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 가정을 위해 :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을 친척이나 다른 이에게 맡기고 싱가포르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들이 가정을 위해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혜롭게 권고하고 지원하도록
- 조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 높은 범죄율, 도박 중독, 약물 남용에 대해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악순환을 끊어 주시도록

에스겔 22 : 30과 시편 85 : 2 - 3을 읽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곳을 막아서 있는 자로 부르신다. 하지만 왜 소수의 몇 사람만 그 부르심에 응답할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단 한명도 찾지 못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모든 나라, 모든 땅을 돌보신다. 무너진 곳에 선다는 것은 쿠알라룸푸르의 쌍둥이 빌딩을 연결하는 구름 다리처럼 한쪽과 다른 한쪽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야 한다. 어떻게 이을 수 있는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는 깨어진 관계를 고친다. 회개함으로 원수에 대한 미움의 씨앗이 소멸된다. 레위기 26 : 40 - 42에서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죄를 비롯해 특히나 지도자들이 범한 죄를 회개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다.

다리를 지었다면 무너진 틈에 서라.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한 느헤미야와 같은 이를 찾으신다. 그 일에는 다른 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알려 더불어 기도하게끔 하는 일도 포함된다. 또한 우리는 깨어서 이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한 걸음씩 뚫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도록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는 것이다.

PRAY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말라카(Melaka)

- **말라카의 교회를 위해:** 말라카의 교회는 공동체의 연합에 소극적인데다가 평안함에 안주하고 있어 부흥이 시급하다. 성도들의 마음이 민감하게 살아나고 성령의 새 영이 부어지도록
- **말라카의 청년들을 위해:** 말라카 청년들의 꿈을 위해서, 그들의 목표가 물질적 성공에만 그치지 않도록
- **지속 가능한 정책과 계획을 위해:** 지방 정부가 말라카주의 발전을 추구해가도록

토저(A.W Tozer)는 그의 책에 “하나님의 신적인 자비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그분의 영원하신 속성이라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언젠가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무한하기에 더 많을 수 없고, 무한함은 감소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적을 수 없다.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끊임없이 광대하신 신성한 공화이다.”라고 썼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그의 자비로 인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정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역대상 16 : 34, 시편 89 : 1, 민수기 14 : 18, 예레미야 애가 3 : 22, 디도서 3 : 4 - 5, 시편 52 : 8절을 읽으라.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빠락(Perak)

- 조직폭력은 지역에 만연한 문제이다. 조직폭력단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 학생들은 결국 갈취와 약물남용 심지어 살인까지 가담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학생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하자. 불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생존을 위해 조직폭력단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자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삼림 벌목지를 위해 기도하자. 환경을 보호하는 더 나은 법률이 시행되도록. 무분별한 팜오일 농장 개발공사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남기는 벌목지를 위해

사람 편 85편을 읽으라. 이 시편은 고난의 시기에 공동체가 함께 드린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새롭게 하시기를 구한 기도이다. 이 시편은 하나님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회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시작한다.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쉽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오 주님, 우리는 기도하지만 염려를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모으도록 도와주세요. (시편 27:4)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자비를 기억하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간청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과 사랑에 목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할 것을 이미 알기에 우리는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이며, 죄 사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 앞에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다.

PRAY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꼬다(Kedah)

- 꼬다 주의 아이들을 위한 기도 : 약물남용, 성적인 문란함, 조직폭력은 꼬다 주의 청소년들이 겪는 지속적인 문제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 영향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의 아이들을 보호해주시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회복과 치유가 임하도록
- 가족들을 위한 기도 : 코타 세타르(Kota Setar), 발링 씩(Baling, Sik), 꾸알라 무다(Kuala Muda), 꾸방 파수(Kubang Pasu)와 같은 지역에 사는 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고 정부의 원조가 공평하고 적절하게 일어나도록
- 말레이시아와 태국 국경지역의 안전을 위한 기도 : 국경지역의 경비가 너무도 허술하여 밀수, 총기, 이민자 문제가 만연하다. 방위 조치가 잘 시행되어 나라의 국경과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L 가복음 18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길 구한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기록한다. **T**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에 의기양양하였고 그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성취를 과시하였다. 너무나 대조적으로 세리는 그의 죄를 알고 깊이 뉘우쳤다.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자비는 성경 전체를 통해 널리 드러나 있다. 많은 경우에, 그분의 자비로 인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받으며 새로운 삶으로 옮겨졌다. 한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고 다시 보게 되었다. 귀신들린 자는 자유케 되었고, 사도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증거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는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가 자신과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영국의 찰스 스펔전 목사는 그의 저서 〈Heartlight Morning Devotional〉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다양한 경이로움을 설명했다. 부드러운 자비, 위대한 자비, 받을 자격 없는 자비, 부요한 자비, 변함없는 자비.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한결 같은 사랑과 자비를 찬양하자.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슬랑오르(Selangor)

- 말레이시아 총리가 지혜와 진실함으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용기를 갖도록
- 높아지는 범죄율 :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실직자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곤경에 처한 자들에게 조치가 취해지고 조직폭력, 약물, 도박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자.
- 부유한 지역의 교회가 밖으로 시선을 돌려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나누도록 기도하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시85:4)”

우리의 땅의 치유가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기 전에, 그분의 교회인 우리가 그 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

오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깨어지고 회개하도록 하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길 간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잘못을 알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기도한다.

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과 나라의 문제들은 우리를 압도하여 저항하기 힘든 마음을 갖게 하고 평화를 앗아갈 때가 있다. 하지만, 폭풍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자. 예수님이 배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인되신다.

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소서

곤란에 처할 때 우리의 생각과 기도는 흐트러지기 쉽다.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주위의 큰 목소리와 강한 의견들에 쉽게 산만해 지는가? 부흥을 위해 영향력 있는 기도를 드리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전략을 따라 기도를 드려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끌란탄(Kelantan)

- 끌란탄의 교회를 위한 기도 : 끌란탄의 교회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강력히 드러내도록.
- 주 정부를 위한 기도 : 주 정부의 재정을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가난한 자들과 홍수와 같은 재난에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고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기도하자.
- 보호를 위한 기도 : 지난 몇 년간 동쪽 해안에서 가장 심각한 홍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 홍수가 멈추도록 기도하자. 말레이시아와 태국 국경의 폭력사태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자비를 불신하여 무시하는 것은 “초대받은 연회장 밖에서 굶어 죽는 것” 일 것이다. 토저(A.W. Tozer)는 그의 저서 <하나님을 바로 알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느끼는 순전한 기쁨을 붙들라고 말한다. 자비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대가없이 무한하게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연회에 초대된 진정한 감사는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바리새인이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한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공홀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9:13)” 고 말씀하신다. 종교적 의무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받았으니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엄청난 죄값을 은혜롭게 사하여 주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당신이 탕감해 주어야 할 어떤 빛이 있는가? 하나님의 공홀을 다른 이에게 미치기 위해 당신은 무엇부터 순종해야 하는가?

PRAY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뜨렝가누(Terengganu)

- 공홀한 마음을 위한 기도 : 뜨렝가누의 교회가 친절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확장되도록,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자.
- 극단주의가 온건해지도록 기도하자 : 뜨렝가누 주에 더욱 더 힘을 얻고 있는 있는 인종차별에 맞서 기도하자.
- 정부와 NGO의 협력을 위한 기도 : 특히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반응해야 할 때, 이 지역에서 인종차별과 정치적 이슈에 대해, 긴급상황에 더 잘 준비되어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_____ **L** 헤미야는 격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황폐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그가 도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느헤미야 1장)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왕의 눈에 들어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보내고 그 일을 위한 자원들도 공급해 주었다.

말레이시아는 여러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있고, 황폐한 상태에 있어 재가동과 재건해야 할 긴급한 필요들이 있다. 종종 우리는 이 무너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감을 느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심지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종잡을 수 없기도 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고 성벽을 재건할 위대한 사명을 가능케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말레이시아를 재건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삶 속에서 황폐한 곳이라고 느끼는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해 보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그분을 압도할 만한 일이란 없다. 완전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PRAY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뽀리스(Perlis)

-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기도** : 말레이시아와 태국 국경지역 왕플리안 지역은 이민자들을 밀수하는 인신매매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작년에 인신매매자들에게 포로로 잡혀 살해당한 이주자들을 묻은 공동묘지가 국경 근처 버려진 캠프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악과 비인간적인 거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가정들을 위한 기도** : 하나님이 축복하여 부모님의 이혼과 마약 중독과 같은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족의 연대를 강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자.
- **경제발전을 위한 기도** : 농업은 뽀리스의 시골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풍성한 수확을 축복하시고 농부들이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왔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아가 무엇을 해야할 지 알았을 때 그가 했던 것이다. 비록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다가올지 예견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걸로 충분했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걸 알았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매”(느헤미야 2장)

우리가 이 나라를 둘러보면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범죄는 늘어가고, 경제상황은 불안하고, 부정부패가 뽀뽀하게 행해지고,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건축자이며, 군대인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을 위해 하나님 그분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일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느그리 쉘빌란(Negri Sembilan)

- 왕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 : 중용적 정치의 기둥과 조정자로, 인종적 조화와 바른 통치의 옹호자로서 그들이 확고해 지도록
- 느그리 쉘빌란주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부정부패로부터 매이지 않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력들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도록 기도하자.

GPS 네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어떤 장소를 찾아가다가, 중간에 신호를 잃어 헤매거나 잘못된 방향을 따라 간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GPS는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필요 했을 수도 있다.

술관원으로서 느헤미야의 인생의 방향은 왕궁을 향해 있었다. 그가 맡은 일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왕은 술로 독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를 의지했다.

그런데 인생이 의외의 방향으로 돌아 서게 되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재건 공사를 이끌도록 책임을 맡기셨고, 그는 순종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완벽하고 실패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미리 예정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장 난 또는 구식 GPS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결국 길을 잃게 되거나 우리 인생에서 이뤄야 할 일을 놓치고 말 것이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가?

PRAY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빠항(Pahang)

- 빠항 주에 거주하는 원주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기회를 주시도록. 빠항 주의 내륙지방은 많은 부족민들의 고향인데, 개발과 차별로 인해 변두리로 그들이 내몰리고 있다. 의로운 사람들이 파항 주에 배치되어 원주민들의 복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광석이 풍부한 빠항 주의 자원개발에 대항하는 기도 :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거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무책임한 채굴에 대해 책임자들의 단속이 이뤄지도록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시편 90:17)

건축자들은 일을 할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당면한 도전들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미리 준비시키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건축자가 되도록 임명하셨는데, 제자로서 사람들을 세우고, 건축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르셨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 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도록 드러진바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일과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의도적으로 매일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편기자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편 19:14)라고 기도했다.

당신은 자신의 삶과 일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기쁨에 빠져본 적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이다.

PRAY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사바(Sabah)

- 점점 빈틈이 드러나고 유괴와 무장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사바 주의 국경지역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 여러 부도덕한 거래를 야기하는 부패의 견고한 진을 깨뜨려 주시고, 확대되지 못하도록 기도하자. 주 정부가 의롭고 그 지역을 보호하고 번영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 사바주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부흥하게 하셔서, 사바 주의 가장 어두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시고 모든 부족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 4장)

건 축자들은 지쳤고 낙담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조로 왔고, 그들은 몇 주 동안씩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 주변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조롱했고, 심지어 공격하려고 위협을 가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기억하고 있는가? 선지자 엘리야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느라 소진하여 낙담하였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충분히 힘을 회복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라고 할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그것들을 내어 놓으라.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사라왁(Sarawak)

- 불법적인 벌목 행위를 막아주시고 토착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 선출된 대표들이 선거 공약을 잘 이행하도록 기도하자.
- 시골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하자.
- 사라왁 교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자.

창세기 12 : 1 - 8를 읽으라.

“기도의 제단은 영적인 땅과 눈에 보이는 세상 사이의 영적인 관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러한 영적인 권위는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땅으로 초청하는 모든 이에게도 주어진다. 그러므로 기도의 제단은 영적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영적 발판이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을 때, 이미 그 땅은 다른 신들을 믿는 이방인의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므로 그 지역을 주님께 드렸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그 땅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그 곳을 소유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고, 예배하는 모든 곳이 영적으로 새로워 지길 원하신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어두움은 반드시 사라진다.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가?

PRAY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 도시 빈민층을 향한 구원의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자 : 정부와 NGO 단체들의 도시 빈민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잘 추진되고, 충분한 생필품이 공급되도록 기도하자. 또한 이 과정에 어떠한 부정부패나 사리사욕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 치안을 위해 기도하자 : 지난 몇 년간 칼라룸푸르는 빈곤, 마약, 범죄 조직 관련 사건 등으로 인해 점점 위험해 졌다. 경찰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도시를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창세기 19장을 읽으라.

“오직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으며, 거룩하지 않은 제단은 악한 존재를 끌어들이고 어둠의 나라를 세워준다.” - John Mulinde과 Mark Daiei <기도의 제단>.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제단을 쌓는 일에 소홀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창세기를 보면, 삼촌인 아브라함과 달리 롯이 기도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러한 그의 태만함은 결국 재앙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함에 굴복하였고, 그의 아내, 재산, 결국 그의 유산인 딸들과의 근친상간으로 거룩하지 않은 세대인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기에 이르렀다.

지역의 영적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드리는 이교적 제단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악한 영향을 준다. 이런 제단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드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이다.

여러분의 이웃에 이교적인 제단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 둘러보라. 당신의 지역에는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것이 거룩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가장 왕성한 제단이 그 지역을 주도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PRAY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라부안(Labuan)

-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기도하자. 국제항구 및 면세지역의 중심지인 라부안이 매춘과 밀수 등 불법 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 철두철미한 국경 방비와 지역 보호를 위해 기도하자.
- 라부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이 지역 교회들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피신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들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의 제단을 쌓아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출애굽기 33:7~19을 읽으라.

“기도의 제단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로 드러난다.”

우리 기도모임의 대부분은 우리의 소원과 기도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기도 제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 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열망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점에서 세상과 구별된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재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서 병든 자가 낫고, 악한 영이 들린 자는 자유케 되고,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받으실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변화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며 자신을 지으신 유일한 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인간의 권리이다.” - John Mulinde <기도의 제단>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기에, 기도 제단을 세워야 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다.

말레이시아의 주(州)를 위한 기도: 뿌뜨라자야(Putrajaya)

- 뿌뜨라자야에 위치한 정부 각 부처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혜, 정의, 청렴함을 주시도록. 또한 정치인들과 행정 관료들에게 전략을 주셔서 훌륭하게 그들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위있는 자리와 정부부처에 배치되도록. 기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힘주시도록 기도하자.

로마서 12:1~3을 읽으라.

우리는 기도 of 제단에서 무엇을 하는가?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기록했다.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 제단에 무엇인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다. 오늘날 악한 영이 득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제단에 엄청난 제물, 심지어 자신의 삶도 바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기도의 제단에 우리의 시간, 여가, 사랑, 인생이라는 제물을 드린다. 금식은 제물을 드리는 하나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40일간 금식하셨다.

우리가 금식할 때, 주님을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따로 내어야 한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확장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말레이(Malays)

-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의 주종족인 말레이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번영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자. 특히 시골에 사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교육의 기회를 외면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 민족성, 종교, 종파에 관계없이 말레이시아의 모든 종족들이 화합을 이루도록 기도하자.

사도행전 2:42~47을 읽으라.

오늘날의 교회와 달리, 초대 교회는 각종 프로그램과 사역들에 대해 그다지 많은 중점을 두지 않았다. 초대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은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매일의 제단이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려는 프로그램들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셨다. 예수님이 의미하신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기도(프로그램의 하나로서가 아니라)를 가장 우선순위를 둘 때, 비로소 교회가 하는 일들이 모든 열방 가운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교회의 기도제단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제단이다. 그것은 회중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로 자신들의 제단에 불을 붙이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기도의 제단을 세워가는데 시간을 들일 때,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변화될 것이다. 결국 개인적인 공간인 가족이나 일터에서조차 자신의 제단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 할 것이다.

교회,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제단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사는 도시들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축하한다. 독립기념일¹을 기념하는 것처럼, 말레이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계속 기도하자.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중국인(Chinese)

- 중국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번영케 하시도록 기도하자. 문화적 사고방식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얻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 민족성, 종교, 종파에 관계없이 말레이시아 모든 민족들 간의 화합이 이뤄지도록 기도하자.

¹ 역자 주. 8월 31일은 말레이시아의 독립기념일이다.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너무 많은 목소리들에 압도되어 혼란과 갈등을 느끼며 어떤 결정이 옳은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았는가?

자신의 생각을 포함하여 너무 많은 견해들과 너무 많은 선택사항들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분별하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주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들여 이 두 가지 품성을 길러야 한다.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지시고, 가장 좋은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PRAY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인도인(Indians), 시크교인(Sikhs)

- 하나님께서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과 씨크교(Sikh) 사회를 축복하셔서 보호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도록, 이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복음과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교육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갖도록 기도하자. 인도계와 씨크교(Sikh) 사회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말레이시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이나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자.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라.

바울과 그의 일행은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는 견고해졌고, 수적으로 부흥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성령은 설교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셨다. 그리고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신 서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선교여행 내내, 바울과 일행들은 성령님의 인도에 언제나 민감히 깨어있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특정한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때로는 어떻게 행동할 지 가르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곳의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열려있는지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하고,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PRAY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빠라나칸(Peranakan)/ 바바뇨냐 (Baba Nyonya)¹

- 하나님께서 빠라나칸 사회를 축복하셔서 보호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기를, 이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복음과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 미신적 믿음과 제사가 바바뇨냐 문화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된 믿음을 무너뜨리시고, 이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자.
- 말레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자.

¹역자 주. 15-17c 이후 한 중국인들의 후손

마태복음 2 : 12 -23을 읽으라.

요셉은 당혹스러웠다. 갓 태어난 아들 예수가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를 받았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분노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기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 명했다. 이에 요셉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몇 해가 지나고, 주님께서 요셉에게 헤롯왕이 이제 죽었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또 다른 꿈을 통해 유대 땅으로 가지 말고 대신 나사렛으로 가라고 경고하셨다.

구약시대의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는 꿈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받았다.

어떤 방식으로든-꿈을 통해서라도-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길 원하신다. 그리하여 때로 하나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신성한 능력으로 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분별을 주신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충고하고, 조언하며 인도와 방향을 알려주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하실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명확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뢰하길 바란다.**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치티(Chitty)¹

- 하나님께서 치티 사회를 축복하셔서 보호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자. 적은 수일지라도 치티족은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강성했던 민족이다. 이들의 문화와 사고방식,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힌두교가 무너지고 구원의 복음이 굳건히 심어지도록 기도하자.
- 말레이시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종교 신념과 관계없이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자.

¹역자 주. 15c 정착 한 남부 인도인들의 후손

열왕기상 19 : 9-18을 읽으라.

엘리아 선지자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한 사악한 이세벨로부터 도망하는 중이었다. 사십일 주야로 홀로 광야를 지나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 들어가 머물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나갈 테니 굴에서 나와서 산 앞에 서라.”

이후에 일어난 일은 매우 극적이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고,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고요한 음성으로 곤고하고 지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의 섭리와 은혜를 드러낸 것이었다.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며 말씀하셨지만, 이 때에는 엘리야의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이 필요함을 아셨다.

두려움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은 부드럽게 다가오신다. 최근에 잠잠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속삭임을 들은 것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PRAY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오랑아슬리(Orang Asli)

오랑 아슬리는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천년 이상을 거주한 원주민이다. 현재 오랑 아슬리 문화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자신들의 본토에서 밀려나고 있다. 오랑 아슬리 사회는 높은 빈곤률을 보이고 있다.

- 오랑 아슬리들이 정부의 오랑 아슬리 부서(JHEOA)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개입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더 많은 오랑 아슬리 마을들이 오랑 아슬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미 지정된 구역들이 개발과 채굴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오랑 아슬리 교회 위에 축복하시기를, 또, 이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가정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과 인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힘있는 왕이었다. 주변국을 제압하는 패권을 누렸다.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고 고백한 후에도, 교만하여서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했다(단 2:46-47).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와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꿈을 통해 경고하셨다. 하나님은 왕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돌이킬 시간을 주셨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완악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멸망과 저주가 아닌 회복과 축복이다. 심판을 행하실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회복을 허락하신다.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서 심판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속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자.

PRAY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크리스탕(Kristang)¹

- 하나님께서 크리스탕 사회를 축복하셔서 보호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자. 이들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또는 카톨릭 교도들이 주님을 생생히 만나는 믿음의 부흥을 경험하고, 복음을 위한 열정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자.

¹ 포르투갈인들의 후손

52년간 말레이시아에는 두 번의 부흥이 있었는데, 모두 사라왁(Sarawak) 주에서 일어났다. 1973년 바리오(Bario) 부흥과 1984년 바글라란(Ba'kelalan) 부흥이 이것이다. 이것은 3년도 채 지속되지 않았지만, 두 세대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를 미쳤다.

바리오(Bario) 부흥은 중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촉발되었다. 자발적인 회개는 다른 학교와 인근지역 마을, 그리고 세대들 간에 퍼졌다. 복음 전도의 열정은 불붙었고 복음이 다른 마을들까지 확장되었다.

바글라란(Ba'Kelalan)의 룬바완 종족(Lun Bawangs)은 애니미즘에 빠져있었고, 병과 어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1930년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영국 식민지는 이들을 멸종된 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당시 교회는 성장했지만, 70년대까지 형식적인 교회로 굳어져 있었다.

이후 1984년에, 부흥은 여러 징후와 이적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이 기름으로 바뀌었고, 쌀이 밀가루로 변하며, 하늘엔 불덩이가 나타났고, 천사들의 방문이 있었다. 이러한 일의 중심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궁 반가우(Agung Bangau)가 있었다. 1904년 웨쉬(Welsh) 부흥과 1906년 아주사거리(Azusa Street) 부흥과 유사하게 성령께서 바글라란(Ba'Kelaland) 지역에 임하셔서 광범위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났다.

말레이시아에 부흥이 일어나길 열망한다.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위한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이어갈 때, 우리는 더 겸손케 되어 통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실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다약(Dayak)

-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번영하도록 기도하자. 또한 의로운 다약(Dayak)의 남성과 여성들이 말레이시아의 정부와 권위 있는 자리에 세워져, 종족을 보호하고 그들의 땅과 자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애니미즘적인 믿음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게 되도록 기도하자.

거리는 전 세계에서 여행을 온 유대인들로 가득했다. 밀려드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정도였다. 성령 강림절(Feast of Pentecost)를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로 행사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그 도시의 좁디 좁은 방 안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것은 마치 불의 혀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 같았고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요엘 2:28)

그날 삼 천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신약 성경에는 다른 부흥의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가사 지역으로 가던 마술사이며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인 내시 시몬도 있었다(사도행전 8:5).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다.

하지만, 신약성서에서 있었던 부흥에는 박해도 동반되었던 것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가 부흥을 구한다면, 말레이시아의 교회들 더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구해야 한다. 부흥을 위해 우리가 견고해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흥과 함께 올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흥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PRAY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이반(Iban)

- 젊은 이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맨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강해져 가족을 세우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자.
- 자급자족과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씨를 심고 풍성하게 수확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익힐 농업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성공적이고 탁월한 많은 이반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평소와 같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광경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가시덤불이 불 속에 있었지만 타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 이상한 일에 살피려고 멈춰 섰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분의 명백한 영광은 강력한 이집트인들을 전쟁에서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셨다. 또한 사막을 유랑하는 3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며 갈증을 풀어주셨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제사장들조차 출입할 수가 없었다. 선지자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을 통해 보았을 때, 자신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오물처럼 보였다.

이와 같은 영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십자가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다. 그의 영광스런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분은 부흥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세우신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PRAY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바이다유(Bidayuh)

- 최근 바이다유 출신의 한 남성이 법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 일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하자.
- 주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바이다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하도록 기도하자. 바이다유 공동체 리더들은 아직 어린 나이에 임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 16세의 이상이 되어야 결혼하도록 하고 있다.
- 바이다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부모들이 발전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부흥의 표징 중 하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예배이다. 기도, 생산적인 일, 정직한 상거래, 관대한 베품,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넘치도록 올려 퍼지는 찬양이 그러하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부흥안에 있는 공동체의 자연스런 모습이다. 이것은 또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사밧 왕을 생각해 보라. 모압과 압몬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협박했다. 왕은 겁에 질린 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레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역대하 20:15)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였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 온 압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역대하 20:22)

감사기도와 찬양은 모두 부흥을 위한 무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표현형태이다. 바울과 실라는 지하감옥에 갇혀 채찍질로 등이 벗겨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렸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충만한 예배와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은 삶으로 드리는 다양한 예배의 방법을 고려해 본 적 있는가?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오랑울루(Orang Ulu)

- 사라왁 주 정부가 오랑 울루 종족들이 자신들의 땅을 계속 소유하고 경작하도록 보장된 법률을 바르게 집행하도록 기도하자. 토지법률상 오랑 울루의 땅의 권리는 오랑 울루의 기본적인 권리로 되어 있다. 하지만, 목재회사들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벌목으로 그 땅을 손상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오랑 울루에게 주어진 땅의 삼림소유권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 오랑 울루종족 가정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보호하시도록, 부모들이 착취에 대항하는 중요한 열쇠로서 발전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기도하자.
- 오랑 울루 종족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교육과 일자리의 기회를 주어지도록 기도하자.

나가 처음 바리오를 방문한 것은 1993년이였다. 활주로에 내렸을 때, 원주민들은 미소 지으며 전통 공예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었다. 나는 당시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발안 세린(Balan Selin)과 함께 여행을 하였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1973년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특별한 회개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것은 회개하지 않던 어른들을 향한 도전이라 여기고 있었다. 오직 회개의 불이 타오르는 그때에만 부흥이 퍼져 나갔다.

나는 그곳에서 분명하게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 느낄 수 있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새벽기도를 위해 징이 울렸는데, 그것은 1973년부터 이어져 왔다. 나는 처음 성령의 불이 임했던 학교와 교실을 보았다. 부흥의 주목할 만한 결과는 그저 평범했던 학생들이 뛰어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이곳의 부흥에 대해 몇몇 모임에서 나누었었다. 충분히 잘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말씀을 나눌 때마다 뭔가 특별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다.

2011년에 다시 바리오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때의 활주로는 콘크리트로 바뀌어 있었다. 환영인사는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영적인 분위기는 변해 있었다. 1973년에 학생이었던 이들은 이제 바리오 지역의 장로들이 되었고, 그 사이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두 세대가 생겨났다. 이 젊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매말라 있었다. 몇몇은 일을 하러 도시로 떠났고,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렸다. 부흥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만, 모든 일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 교회는 각 세대가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기도하도록 제자화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시편 저자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시편 85:4)라고 부르짖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어야 한다. 당신의 삶의 있어서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까다잔두순(Kadazandusun)

- 삶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교육수준과 고용의 평등한 기회를 위해 기도하자.
- 까다잔두순 종족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여 전심으로 주를 따르고, 영적 속박과 오래된 관습이 깨어지도록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라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편 85:8)

민수기 6 : 25 - 26, 요한복음 14 : 27, 로마서 5 : 4, 시편 34 : 14절을 읽으라.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와 깨어짐에 자비와 은혜로 응답해주시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범위를 넓히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더 이상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얼굴을 돌리시지 않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선언하신다. 옛 것은 잊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처럼 끌어 안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게 하신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안함을 발견할 때, 우리 자신과의 평안함을 찾을 것이다. 그러한 평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다시 진노하게 하는 어리석은 길로 넘어지거나 돌아서지 말자. 대신에 거룩한 마음과 깊은 감사로 충만함을 누리자. 주님의 보살핌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소중히 마음에 품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자.

당신은 여전히 불필요한 무모한 일에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 믿음의 증거로 삼자.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바자우 라웃(Bajau Laut)

바자우 라웃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배에서 생활하고 생계를 위해 바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바다의 집사들”이다. 어떤 바자우 마을들은 말레이시아 국경 안쪽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상당수가 국적이 없어서 법적 신분 보장이나 정식교육을 못 받고 있다.

-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자. 그리하여 예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또한 영원한 천국시민권을 갖도록 기도하자.
-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들을 국민으로서 인정하고 승인할 더욱 실효성 있는 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자녀들이 지역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시편 85:9)

에스겔 10 - 11장, 사무엘상 4 : 19 -22, 이사야 4 : 5, 스가랴 2 : 5, 시편 51 : 11을 읽으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와 영광이 그 땅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예루살렘은 멸망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평강과 자유가 있다. 그는 회복을 주시는 실재하시는 영이다.

주의 영광은 사람들과 민족이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 그분의 영광 없이는 어떠한 민족도 그들의 소명을 완수할 수 없을 것이다.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은 주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주의 영광이 없는 곳은 대신 죽음과 어두움이 통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일에 힘쓰자. 그러면 주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당신은 주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말레이시아의 종족을 위한 기도: 무룻(Murut)

- 하나님께서 무룻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해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리하여 그들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번성하도록 기도하자.
- 더 큰 도시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으려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이 받은 구원을 잘 지키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나누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도록 기도하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시편 85:11 상)

부흥이 오면, 이 땅에서 진리가 회복될 것이다. 주의 빛이 모든 눈을 밝히시고,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거짓말 하는 자들은 그들의 부정한 일들을 회개할 것이고, 거짓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단은 악한 세력을 잃고, 어두움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속임수는 정죄 받지만, 반면 정직함은 칭찬받게 될 것이다.

부흥이 오면 성경이 널리 읽혀지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될 것이다. 말씀은 진리로 인정되고, 다른 것들은 헛된 거짓으로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옥한 땅을 찾아내어 자라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종들이 드러나며 크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쓰여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은 진리를 전달하는 메신저이고 더욱 높임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복된 발을 배우려고 물려들고 진리 안에 성장하게 될 것이다.

부흥이 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것이다. 유일한 진리인 한 분으로서, 예수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이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고자 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혀가 거짓과 속임수로 오염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 보아야 한다.

말레이시아를 위한 기도: 경제

- 국립 은행과 경제부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횡령과 약탈의 문제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자.
- 나라의 미래 경제의 안정성을 걱정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이 땅에 거하여 그들의 성실함으로 식물을 삼을 수 있도록 (시편 37:3) 기도하자.
- 하나님의 강하신 힘과 보호로 국가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교회가 긍휼함으로 겸비되고, 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돌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신념을 갖도록 기도하자.

...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시편 85:11절 하반절)

마태복음 6 : 33, 로마서 6 : 13, 사도행전 3 : 19, 고린도후서 5 : 21, 시편 23 : 3을 읽으라.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사회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사회의 타락하고 굳어진 양심이 한 순간 회복되고, 사람들은 그들의 불의한 행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상태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거역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자비를 구하고 그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회개를 통해 그분께로 돌이키게 되면, 또한 하늘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사람들을 굽어 보시며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십자가 사건은 죄인들을 위함이었고, 인류는 또 다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새 마음과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의로움을 갈망하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다시 칭찬받게 되고, 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땅은 더 이상 폭력과 부패로 고통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대신 하나님의 평안과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은 이것을 위해 새롭게 준비되어 있는가?

말레이시아를 위한 기도 : 사법부와 법률 제도

-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결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되도록 기도하자.
- 판사들이 부정부패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하자. 그들을 돈으로 매수될 수 없도록, 또한 뇌물과 차별에 잘 저항하도록 기도하자.
- 경건하고 의로운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과 변호사들을 위해 기도하자. 젊은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의로움과 공의를 실현하도록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드 (시편 85:12)

요엘 2:18-32, 이사야 54:1-3, 신명기 30:1-10을 읽으라.

부흥의 시기에는 때를 따라 변화가 일어난다. 봄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부흥은 어두움으로 가득한 겨울을 깨뜨리고 이 땅 위에 따스한 주의 임재를 가져온다. 햇빛같은 주의 임재로 땅이 생기가 넘치고 풍성한 수확을 할 것이다. 식물은 열매를 맺고 동물들은 번식할 것이다. 땅의 산물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슬픔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애통은 웃음으로 바뀔 것이다. 꿈은 이루어지고 불가능이 가능케 될 것이다. 심은 것은 거두게 될 것이고, 가난은 풍족함으로 바뀔 것이다.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게 되고, 참회하는 자들이 교회의 제단에 넘칠 것이다. 교회는 성도로 넘칠 것이고 거리마다 범죄가 없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번창하게 되고 모든 필요가 충족될 것이다. 모든 가능성은 실현되고 모든 끝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에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함께 나아가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자.

PRAY

말레이시아를 위한 기도: 교회

- 의로움은 나라를 세운다. 불의함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우리 나라에 공의가 하수같이 의로움이 마르지 않는 물과 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범하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다.
-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영원하신 규례를 따라 모든 행방으로부터 농임을 받을 것이다.
- 비전과 열정을 회복하라. 교회는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에 다시 사로잡혀 깨어나라.
-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태도, 성경적 가치로 움직이는 생활, 예수님 중심의 사고를 위해 기도하라. 믿는 자들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도록 기도하라

소중한 시간을 드려 기도의 열정으로 기꺼이 글을 써주신 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명 한명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 하나님의 진노 : Pr. Ang Siew Khim
- 하나님의 자비 : Ms. Goh Poh Gaik
- 일어나 재건하라 : Rev. Looi Kok Kim
- 기도의 제단 : Pr. Dr. Lew Lee Choo
- 하나님의 음성 : Rev. Gabriel Jabanathan
- 부흥 : Pr. Dr. Philip Lyn

40일

말레이시아를 위한 금식과 기도



8월 7일 - 9월 15일